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더욱 길어진다면 지금 까지도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구도의 틀이 바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바람직 하지 않은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한반도가 전장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한·미 연합 을지프리트답타디언(UFG) 훈련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지난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은 확장 역지의 일환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 시급하다

악화 일로의 환경에서 북한은 주변 상황과 정세 변화를 적극 활용하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우리는 군사적·안보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히 자신들의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에 따른 경쟁·대립이 정리되기 전까지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에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 합경북도 북부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북한 의 5차 핵실험 등을 거론하며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제재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고 제반 상황을 따져 볼 때,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얼마나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속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온 북한을 더욱 강력한 제재로 변화를 갖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투영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민생까지 대상에 추가하는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국면과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주변국 등과의 관계 및 북한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과 대안을 갖고 난국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그레 왔던 것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전략적 대처 없이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외길의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 즉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 간의 적대적 대립이 이어지는 한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투영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단절 및 불안정 심화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이 갈등한다고 해서 이들의 눈치만 보다가는 종속적이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제재와

협상은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제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협상이라는 카드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하지 않는 상황은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상화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며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등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 국면에 진입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격언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긴 안목에서 대처할 문제와 단기내 내에 즉흥적으로 대처할 문제를 잘 판단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대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병행되어야 한다.

社說

시학 개혁 요구에 귀 막고 눈 감은 사립학교

광주 지역 사학들이 시교육청의 ‘교사 채용 위탁’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학원에서 교직원 채용 비리가 불거지는 등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학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법인(13개)을 대상으로 ‘신규 교원 위탁 채용’ 신청을 받은 결과, 금정학원(세광학교) 한 곳만 위탁 채용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해당 사학들은 기간제 교원 비율이 25%를 넘는 곳으로, “채용을 위탁하면 정교사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교육청의 파격적인 혜택 제공도 외면했다.

시교육청이 교원 위탁 채용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수용한 사립학교는 10곳이 채 못 된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가 35개 법인 73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가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위탁 채용을 외

면하는 이유는 사학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또한 사학들의 이런 행태를 방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처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세 차례나 미뤘고, 이번 회의 의결에도 미온적이다. 일각에서 “의회가 사학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학재단이 그동안 광주 교육에 기여한 점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개혁을 요구받고 있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시의회와 교육청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교육 비리 추방에 나서야 한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국가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사학들은 이제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공기로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후 영산강 급속히 죽어 간다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이 ‘죽음의 강’으로 치닫고 있다. 강바닥 중금속 농도가 치솟고, 강물 산소량도 고갈되기 직전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은 1981년 목표 앞바다에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바닷물과 단절돼 오염이 심해졌다. 여기에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두 개의 대형 보(洲) 때문에 강물은 고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에 의뢰해 4대강 사업 전후 영산강 퇴적토 상태와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마디로 비참 상태다. 4대강 사업으로 생겨난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 지점 퇴적물에 함유된 구리·납·비소 등 중금속 농도는 사업 전인 2009년보다 1.2배 이상 최대 34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총인(T-P) 농도는 이전보다 14배 가까이 치솟았다. 총인 농도는 승촌보 우측 강변에서 2691mg/kg, 좌측 강변 2494mg/kg, 죽산

보 좌측 강변 1887mg/kg로 조사됐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인 4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용존 산소량은 승촌보·죽산보 수심 0.2m에서 9.2mg/ℓ·9.8mg/ℓ를 보이다가 수심 4m에 이르면 0.7mg/ℓ·1.8mg/ℓ 수준으로 떨어졌다. 용존산소량이 2mg/ℓ 이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산강에서 생명체는 구경하기도 힘들게 될 판이다. 대형 보가 물줄기를 틀어막는 바람에 매년 여름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녹조 현상도 심각하다.

홍물이 된 전국 4대강의 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섣부른 손대기도 어렵다. 비록 단정 명동 상류를 살피고 보에 가뭄 둔 물을 수시로 갈아 주고, 퇴적토 준설을 서둘러 송물을 터주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남도의 찢줄 영산강이 죽어가도록 보고만 있을 건가.

기고

이 가을에 비엔날레를 생각한다



박 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던 지난 여름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나 보다.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뭘니 뭘니 해도 문화의 계절이다. 여기저기서 많은 문화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도 그 중의 하나인 셈이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국제미술전시회다. 단순한 미술전시회가 아니라 현대미술사와 현대문명에 거대 담론을 던지는 실험적인 미술의 향연장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비엔날레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국제적으로 정상급 수준의 비엔날레는 시각예술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미치는 영

향력이 깊고 크고 무겁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곳 빛고을에서 비엔날레가 열린지 어언 21년이 지났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미술매체인 아트넷(artnet)이 지구상의 백 개가 넘는 비엔날레 중 세계 최고의 베니스비엔날레만 해도 장장 6개월 동안 4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는다. 방문객 유치 측면만 본다면 요즘 대세인 웹툰, 체험, 놀이 축제 같은 것들 여는 편이 훨씬 낫다. 하지만, 시각예술의 울림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날레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광주비엔날레의 가치는 광주의 브랜드 파워를 높인 데 있다. 순수미술 행사에도 경제적 효과도 만만찮다. 광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비엔날레가 광주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만 해도 무려 368억 원에 이른다. 이제 우리 광주가 비엔날레를 넘어 미술과 미술산업, 나아가 문화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이는 물론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광주시와 시의 회가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

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지역과 함께하는 비엔날레를 지향했다.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답게 오락성 행사를 지양하는 대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비엔날레전시관 외에도 여러 전시관으로 분전을 확장했다. 광주의 미술과 미술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특별전, 기념전, 오픈 스튜디오, 나도 아티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10년이 못되어 광주가 한국, 나아가 아시아의 미술 메카가 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 비엔날레 전시도 한 달 가량 남았다. 귀중한 것일수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예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비엔날레를 찾는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비엔날레를 내일처럼 챙겨주면 좋겠다. 언론도 지역적인 지적 대신 따뜻한 관심을 갖고 비엔날레를 알려주고 또 보듬어 주면 정말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의 한가운데서 비엔날레를 통해 넉넉한 행복을 누리려면 더 없이 좋겠다.

종교칼럼

가을 단상



양 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올 가을은 유난히 화려할 것 같다. 여름 내내 쏟아 부은 폭염 너머 숲에 호사스런 패션쇼가 막을 올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산은 돌을 깎아 세웠거나 아니면 돌을 다듬어 놓혀 놓은 돌 덩어리다. 가끔 외국에 가 보면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언덕인데 푸석푸석한 흙으로 도톰히 덮여 있다. 경지로 말한다면 한국의 산이야말로 그것은 일품이다.

산마다 들어서면 우선 내용에 속된 티가 없다. 산길은 유연하고 토종 수목들이 빚어낸 풍경, 봉우리마다 솟아 있는 기묘한 바위가 주는 미감,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

외국의 산보다 우리나라의 산이 이렇게 다르니 산의 수목도 다르다. 우리의 수목은 바위틈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찢기며 뺨는 피 말리는 작근이다. 그 뿌리로 서 있는 수목은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수목은 잎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피색을 한다.

우리나라의 단풍수목은 줄기도 뿌리도 살차지 못하다. 가지는 더욱 가늘프다. 그 가지가지에 달린 잎은 날카롭다. 어쩌면 칼끝 같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만지며 보는 외국의 단풍은 달랐다. 쪽쪽 뺨는 뿌리와 같이 나무들이 크다. 가지가 굵다. 총해에 몸부림친 흔적이 없다. 붉다 못해 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저 덤덤한 중간색을 했다. 잎의 모양도 그저 그렇거나 허며 찢든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그래서 외국의 단풍은 관광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단풍은 관광을 해야 한다. 관광은 멀리서 전체를 한 눈으로 보는 것이고, 관광은 가까이에서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말

하면 우리나라의 단풍은 여백이 많은 동양화이고, 외국의 단풍은 화폭을 가득 메운 짙은 서양화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서양화는 눈을 가득히 채워주고, 동양화는 생각을 가득히 남겨 준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가 곡선(線)이라는 말을 늘 해왔다.

한옥지방 끝이 그렇고 여성들의 옷고름이 그렇다. 치마 자락이 그렇고 선비들이 치는 난(蘭)이며 대(竹)를 치는 것도 모두 두가 선이다. 가을 단풍까지도 그 미는 선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전 강토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곡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곡선의 문화”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나친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화란 한 공간 속에서 오랜 세월 가꾸어진 특성으로 그것은 민족의 특유한 성격이다. ‘선’은 선명하다. 그것은 지(智)다. 선은 가늘프다. 그것은 정(情)이다. 선은 방향을 갖는다. 그것은 의(義)다. 선은 음악을 낳는다. 그것은 선율이고 화음이다. 역사도 선이다.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시작은 ‘에덴’이며 끝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라 함은 인간구원의 완성상태의 상징이며 인간구원이라 함은 육(肉)적이고 영(靈)적이고 심(心)적이며 물(物)적이며 시간적이고 영원한 것, 전인적인 것이다.

올해 희수를 맞는 나는 단풍의 나라에서 태어나 해마다 단풍을 보아 왔는데 만엽을 달고 올 길인 여름 폭서를 이겨낸 투지, 이제는 훨훨 털고 가려온 데 하나 없는 선달의 수목으로 일전(一鵬)을 준비하고 있을 것만 같다. 올해 따라 곱게 필 한 잎 단풍을 생각하며 “선의 문화”를 되뇌며 이렇게センチ멘탈(Sentimental)해지지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내 마음 구석구석에 삼천리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움, 분단되어 동토가 된 금강산의 단풍을 볼 수 없는 통분함이 낙엽같이 쌓여 지는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의 인생길이 어느새 만추의 풍경을 닮은 까닭도 있으리라.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無 等 鼓**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 뇌의 구조나 욕망의 작동 방식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행태들이 인류 태동 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시간과 장소·주인공만 바뀐 채 일어나곤 한다.

고대 중국사에 등장하는 은(殷)나라는 탕왕이 하(夏)나라의 폭군 걸왕을 내쫓고 세운 나라다. 13년간 재위한 탕왕은 중국 국전설 수명군인 요와 왕으로 이은 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려 7년간이나 흑독한 가뭄이 이어지자 백성의 성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여섯 가지 잘못을 저어 벽에 걸어 놓고 반성한다.

“첫째,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지 않은가. 둘째,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셋째, 궁전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은가. 넷째, 여자의 청탁이 성하고 정치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은가. 다섯째, 뇌물이 성행하지 않은가. 여섯째, 참소로 여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의 왕들도 국정이 어렵거나 가

뭉이 들어 기우제를 지낼 때면 거의 반드시 탕왕의 반성문을 활용했다. 성종도 재위 6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반성문을 썼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이 반성문에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천신과 간신이 혼동되었는지, 사벌이 잘못되었는지, 감사와 인사고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는지, 뇌물이 횡행하는지, 약한 자를 짓밟는 자가 많은지” 등을 잘 살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성종이 쓴 반성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탕왕의 경우엔 기도를 마치고 하늘이 감동해 비를 내렸다는 전설로 꼽힌다. 하지만, 무려 7년간이나 흑독한 가뭄이 이어지자 백성의 성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여섯 가지 잘못을 저어 벽에 걸어 놓고 반성한다.

이전해 온다. 하늘은 백성일 테니, 백성들은 반성문으로나마 자신들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헤아려 주고 소통해 준 탕왕을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즘 국내 상황을 보면 정치는 갈등과 충돌로 점철되어 있으며, 경제는 침체돼 백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 김영란법이 시행될 만큼 부정청탁과 뇌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 상당수는 부정을 저질러 영의 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의 왕들도 국정이 어렵거나 가

**반성문**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220-054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220-055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